양촌 권근과 서거정의 골계전

서거정의 『골계전滑稽傳』에는 양촌 권근과 삼봉 정도전, 도은 이숭인(1347~1392) 등의 성품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한다. 골계전은 서거정이 조선 성종 8년(1477)에 고려 말과 조선시대 초의 이름난 사람들 사이에 생긴 기문(奇聞)·재담을 모아서 엮은 책(冊)이다.

원래 이름은 『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이고 전 4권이다. 서거정이 익살스러운 해학적인 방법으로 서술한 골계전이라서 곧이곧대로 사실史實로서 믿을 수는 없지만 선인들의 성품을 예리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삼봉(三峯) 정선생(정도전), 도은(陶隱) 이선생(이숭인), 양촌(陽村) 권선생(권근)이 평생의 즐거움(樂)에 대하여 더불어 담론하였다.

삼봉이 말하기를 "북방에 눈이 처음 휘날릴 제 초구貂裘(담비의 모피(毛皮)로 만든 갖옷)를 갖추어 입고 준마에 올라타서 누렁개를 이끌고 푸른 매는 팔뚝에 얹어 넓은 들판을 달리며 사냥하는 것이 족한 즐거움이다."

도은이 말하기를 "산방山房 조용한 방의 밝은 창 깨끗한 책상에서 향을 피우며 스님과 마주 앉아 차를 끓이고 연구를 짓는 것이 족한 즐거움이다."

양촌은 "흰 구름이 뜰에 가득하고 붉은 태양이 창을 비칠 때 따뜻한 온돌방에서 병풍을 둘러치고 화로를 끼고서는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벌렁 누웠는데 미인이 가냘프고 여린 손(섬수纖手)으로 수를 놓다가 때때로 바늘을 멈추고 밤을 구워 입에 넣어주는 것이 족한 즐거움이다" 라고 말한다.

서거정은 인생의 즐거움에 대해 세 사람의 취향을 각각 다르게 묘사한다. 삼봉 정도전은 가죽옷을 입고 준마를 타고 사냥개와 함께 매를 날리며 사냥하는 것이 평생의 즐거움이다.

조선 창업의 기틀을 설계할 정도로 철학과 사상에 뛰어난 문인이지만 눈발 휘날리는 북방의 허허벌판에서 준마를 타고 사냥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낙으로 생각하는 무인 기질의 정도전을 그려낸다.

서거정이 지적한 것처럼 삼봉은 문무를 겸전한 혁명가였다. 도은 이숭인은 조용한 산속 절간 같은 곳에서 차를 끓이며 스님과 학문에 대해 담론하고 연구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토로한다.

도은 역시 당대의 석학이었다. 그는 고려말 목은(牧隱) 이색, 포은(圃隱) 정몽주와 함께 삼은(三隱) 중 한 명으로 특히 문장력이 뛰어났다. 서거정은 양촌 권근의 외손자이다. 외손자였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외할아버지 양촌 권근을 직접 목격하고 사랑도 받았을 것이다.

서거정이 생각하는 양촌 권근은 따뜻한 온돌방에서 벌겋게 피어오르는 뜨근뜨근한 화롯불 옆에서 책을 읽으며 아름다운 미인과 함께 밤을 구워 먹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생각한다고 말한다. 외할아버지 옆에 외손자 서거정도 함께 앉아서 투정 부리며 외할아버지가 구워 주는 밤을 맛있게 먹고 있을 것 같은 풍경이다. 가장 일상적인 즐거움을 즐기는 모습이다.

세 사람은 모두 목은 이색의 제자이다. 그러나 세 사람은 성품만큼이나 인생길이 다 달랐다. 역사적 장소에 대한 느낌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

세 사람은 「오호도嗚呼島」라는 섬을 보고 똑같이 시를 지었다. 「오호도嗚呼島」는 『사기(史記)』「전담열전(田儋列傳)」에 의하면, 한(漢) 고조(高祖)가 천하를 통일하자, 제왕(齊王) 전횡(田橫)은 무리 5백여 명과 함께 동해바다 섬으로 망명했다.

고조가 전횡을 부르자, 전횡은 낙양으로 오다가 왕이었던 자신이 신하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치욕을 느끼자 30리 떨어진 곳에서 자결하였다. 고조가 또 나머지 5백 명을 불렀으나 전횡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모두 자결하였다.

이 「오호도嗚呼島」에 대해 쓴 세 사람의 시는 서로 어떻게 다를까.

「오호도嗚呼島」 / 이숭인

嗚呼島在東溟中(오호도재동명중) 오호도라, 동해바다 한복판 떠 있는데
滄波渺然一點碧(창파묘연일점벽) 푸른 파도 아득한 속에 새파란 한 점
夫何使我雙涕零(부하사아쌍체령) 대체 무엇이 나로 하여 두 줄 눈물 흘리게 하나
祇爲哀此田橫客(지위애차전횡객) 다만 전횡의 객들이 슬프기 때문이네
田橫氣槪橫素秋(전횡기개횡소추) 전횡의 기개가 가을 하늘 뻗쳤었고
義士歸心實五百(의사귀심실오백) 의사 심복한 이 실로 5백 명
咸陽隆準眞天人(함양륭준진천인) 함양의 코 큰 분은 하늘에서 내린 사람
手注天潢洗秦虐(수주천황세진학) 손으로 은하를 당겨 진의 학정 씻었는데
橫何爲哉不歸來(횡하위재부귀래) 전횡은 어찌하여 귀의하지 않고
怨血自汚蓮花鍔(원혈자오련화악) 원한의 피로 스스로 연화검을 더럽혔나
客雖聞之爭奈何(객수문지쟁내하)
객들그기별들었으나하소연한들어쩔도리있었으랴
飛鳥依依無處托(비조의의무처탁) 나는 새도 아련히 의탁할 곳 없어지니
寧從地下共追隨(영종지하공추수) 차라리 지하에 따라가 함께 따를망정
軀命如絲安足惜(구명여사안족석) 실낱같은 몸과 목숨 어찌 아낄 수 있으리오
同將一刎寄孤嶼(동장일문기고서) 모두 같이 목을 찔러 외로운 섬에 묻히니
山哀浦思日色薄(산애포사일색박) 산도 섧고 개펄도 시름시름 지는 해 희미하네
嗚呼千秋與萬古(오호천추여만고) 아, 천년 지나가고 또 만년이 흘러간들
此心菀結誰能識(차심울결수능식) 맺힌 이 마음 누가 알아줄까
不爲轟霆有所洩(부위굉정유소설) 천둥이 되어서 이 기운 풀지 못하면
定作長虹射天赤(정작장홍사천적) 정녕코 긴 무지개 되어서 하늘을 붉게 뻗치리
君不見(군부견) 그대는 보지 못했나
古今多少輕薄兒(고금다소경박아) 고금의 수많은 경박한 소인들이
朝爲同袍暮仇敵(조위동포모구적) 아침엔 친구였다 저녁에는 원수 되는 걸

목은 이색은 이숭인이 지은 이 시를 읽고 이렇다 할 평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숭인은 전횡이 진나라의 학정을 멈추게 한 한고조 유방에게 왜 귀의하지 않았는지 애석하게 여기면서, 전횡을 따라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500 의사(義士)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다. 이를 통해 도은은 아침에 친구였다 저녁에 원수가 되는 경박한 세상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오호도에서 전횡을 조상하다 (오호도조전횡嗚呼島弔田橫)

/ 정도전(鄭道傳)

曉日出海赤(효일출해적) 아침 해 붉게 바다 위로 나와
直照孤島中(직조고도중) 외로운 섬 안을 바로 비춘다
夫子一片心(부자일편심) 선생의 한 조각 붉은 마음은
正與此日同(정여차일동) 바로 이런 바다의 아침 해 같구나
相去曠千載(상거광천재) 몇 천 년이나 아득히 서로 떨어졌지만
嗚呼感予衷(오호감여충) 아아 나의 충정이 느껴지는구나
毛髮竪如竹(모발수여죽) 대나무같이 머리털이 치솟고
凛凛吹英風(름름취영풍) 늠름히 영명한 바람 불어오는구나

삼봉 정도전은 "오호도에서 전횡을 조상하다(오호도조전횡嗚呼島弔田橫)" 라는 시를 쓴다. 삼봉의 시에는 전횡을 따라 죽은 500명의 의사는 보이지 않는다. 삼봉은 선생의 한 조각 붉은 마음이 내 충정으로 느껴진다고 마치 자기 일처럼 감정이입한다. 전해 내려오는 일설에 의하면 스승 이색이 정도전이 쓴 이 시를 읽고 "이 시는 비록 전횡을 조문한 것이나 삼봉이 정치에 뜻을 두고 있는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떠한가? 이 늙은이가 잘못 보았는가?"하였다 한다. 목은은 이미 삼봉이 이윤의 뜻을 품고 크게 정치를 할 인물로 보았던 것이다.

오호도를 지나며(과오호도過嗚呼島)

/ 권근權近

자주自注 속위지반양산俗謂之半洋山 세상에서는 반양산이라 부른다.

蒼蒼海中山 (창창해중산) 바다 가운데 산은 멀리 아득한데
萬古浮翠色 (만고부취색) 만고에 푸른 빛으로 떠 있구나
觀者盡嗚呼 (관자진오호) 보는 사람들 모두 슬퍼 탄식하며
爲弔田橫客 (위조전횡객) 전횡의 사람들을 위해 조문하누나
一士足可王 (일사족가왕) 군사 하나로도 가히 왕이 되는데
擾擾多五百 (요요다오백) 오백은 많을 뿐 시끄럽고 어지럽소
天命已有 (천명이유귀) 하늘의 명은 이미 따를 것을 아는데
人固難容力 (인고난용력) 사람을 가두고 어찌 힘써 막으리오
苟得小者侯 (구득소자후) 겨우 협소한 곳의 왕이라도 얻었다면
猶可存宗 (유가존종석) 다만 조상의 위패는 가히 보전할텐데
如何却自裁 (여하각자재) 어찌하여 스스로 결단하여 물러나
以比經溝瀆 (이비경구독) 도랑에 목맨거와 견주는가
死輕尙能堪 (사경상능감) 죽음을 가벼이 여기니 또한 능히 참고
義重寧屈辱 (의중녕굴욕) 의를 중히 하니 어찌 욕되게 굽히리오
田宗旣已亡 (전종기이망) 전횡의 일족은 다 이미 망하였으니
烏止于誰屋 (오지수우옥) 아 누구의 집으로 가서 머물려는지
欲報平生恩 (욕보평생은) 평생의 은혜를 갚고자 하려면
殉身是其職 (순신시기직) 몸소 따라 죽는 것 마땅히 옳은 일이라네
烈烈志士心 (열렬지사심) 열렬한 뜻있는 선비의 마음을
永與雲水白 (영여운수백) 높이 빛나는 별처럼 영원히 기리네
至今有遺哀 (지금유유애) 오늘에도 슬픔은 남아 있으니
凛凛秋氣積 (늠름추기적) 시름겨운 기운에 울적하여 눈이 흐릿하구나
山飛海亦枯 (산비해역고) 산이 날고 바다가 모두 말라도
忠憤無終極 (충분무종극) 충의의 분한 마음은 끝장이 없겠구나

양촌은 전횡이 하늘의 명을 따르지 않고 하찮은 의리를 위해 도랑에 빠져 목맨 거와 견줄만큼 어리석고 독단적인 처신을 왜 했는지 원망한다. 그러면서도 전횡을 따랐던 사람들을 위해 조문하며 안타까워한다. 그들은 죽음을 가벼이 여기고 의를 중히 여기는 열렬한 뜻있는 선비이다. 양촌은 평생 은혜를 갚고자 몸소 따라 죽은 그 선비들의 마음을 높이 빛나는 별처럼 영원히 기린다고 고백하며 눈시울을 적신다. 그들의 충성스럽고 분한 마음은 태산같이 무거운 산이 하늘을 날고 바다가 모두 말라 버려도 끝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편집국장 권행완

현덕왕후 복권과 남효온의 상소

추강 남효온(南孝溫 : 1454~1492)은 생육신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으로 왕위를 찬탈한 후 단종복위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관직에 나가지 않고 초야에 묻혀 절개를 지켰다. 그는 점필재 김종직과 김시습으로부터 학문을 배웠으며, 김굉필, 정여창 등과 사귀었다. 노산군 문제는 세조대는 물론이고 예종대(1468~1469)에도 감히 언급할 수 없는 뜨거운 감자였다. 성종이 즉위한 후에도 노산군을 죄인으로 보는 시각에는 크게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성종 9년 1478년에 하늘에서 흙비(土雨)가 내리자 이튿날 성종은 구언(求言)한다는 교서를 내린다.

이에 유생 남효온은 포의(布衣)의 신분으로 구언에 응한다. 그는 먼저 성종을 근고 이래로 없었던 성주(聖主)라고 치켜세운 뒤 그런데 성주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천 리의 논밭이 황폐해지고 흉년이 들며(赤地千里), 산이 무너지고 황충(蝗蟲)이 창궐하고 지진과 흙비가 내리는 재이(災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면서 성주는 두려워하며 몸을 닦고 마음을 반성해야 한다며 그 재이를 막을 수 있는 방도로 혼인을 바르게 하는 것, 무당과 부처를 물리치는 것, 학교를 일으키는 것, 풍속을 바루는 것, 사람을 쓰는 것과 버리는 것을 삼가는 것 등 8가지를 제시한다. 그 중에 백성을 다스리는 수령을 잘 고를 것을 주장한 부분은 이렇다. "부자는 전토가 밭두둑(천맥 阡陌)을 연하였으나 가난한 자는 송곳 꽂을 땅도 없으니, 혹은 부잣집에 의탁하여 종이 되고 혹은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마을이 쓸쓸하며 열 집에 네 댓집이 없어지는데도, 감사(監司)가 된 자는 오로지 공급(供給)과 수응(需應)을 잘하는 것을 어질다 여기고 백성을 어루만져 기르는 근심은 묻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령들이 마음대로 탐혹(貪酷)하여 백성의 고혈(膏血)을 착취하니, 의창(義倉)의 많은 속미(粟米)가 반은 사가(私家)로 들어가고 반은 권문(權門)으로 들어가도 예사로이 부끄러워함을 알지 못한다. 슬프도다! 우리 백성이 누구를 의지하며 누가 구제하겠습니까? 그 호소할 곳은 하늘에 부르짖는 것뿐인데 미칠 수가 없으니,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성종9년 4월 15일 병오) 백성이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수령을 옳은 사람으로 뽑아야 백성의 원망이 사라질 것이며 재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한다. 남효온은 마지막 여덟 번째 항목으로 노산군의 어머니 현덕왕후(16세, 부정공파), 즉 소릉(昭陵)을 추복(追復)시켜야 재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죽음을 무릅 쓰고 장문의 상소문을 마무리한다.

남효온은 사육신들의 단종복위 실패의 "화(禍)가 소릉(昭陵)에 미쳐서 20여년 동안 폐함을 당하여 원혼(冤魂)이 의지할 바가 없을 것이니, 하늘에 있는 문종(文宗)의 영(靈)이 홀로 제사를 받기를 즐겨하겠습니까?"(성종9년 4월 15일 병오) 라고 따져 묻는다. 그러면서 "일을 상고하고 마음을 헤아리면 내 마음은 바로 하늘의 마음이며 내 기운은 바로 하늘의 기운이므로,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기운에 순응함은 바로 하늘의 마음과 하늘의 기운에 순응하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기운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마음과 하늘의 기운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하늘의 마음과 하늘의 기운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것은 재이를 내리게 하는 소이(所以)"(성종9년 4월 15일 병오)라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가뭄이 들고 느닷없이 흙비가 내리는 것은 민심과 하늘에 순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재이는 원래 한나라 한무제 당시 동중서가 유교를 국가철학으로 구축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는 전제군주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한 사상적 장치였다.

소릉 복위 주장은 위험했다. 세조 즉위의 정당성과 정난공신의 명분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문제라서 훈구파의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도승지 임사홍(任士洪)과 영의정 정창손(鄭昌孫) 등은 남효온을 국문(鞫問)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종이 내린 구언 교서에 의해 응한 상소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책임을 묻지 않는 선에서 일단락되었다. 확실한 것은 세조가 죽은 지 불과 10년 만에 일개 유생이 정국에 피바람을 몰고 올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만은 분명해 보였다. 그 이후 그는 사육신의 절의를 추모하여 〈육신전六臣傳〉을 저술로 남기고 세상에는 뜻을 두지 않고 유랑하다 삶을 끝마쳤다.

소릉 복위에 대해 다시 포문을 열어 재낀 사람은 충청도사 김일손이었다. 그는 연산군이 즉위하자 시국에 관한 이익과 병폐 26가지를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26번째 마지막 항목으로 소릉을 회복할 것을 진언한다.(연산 1년 5월 28일 경술, 1495년) 처음에는 연산군도 김일손 등을 문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사초에 넣은 일이 발각되면서 사태는 급변한다. 조의제문은 김종직이 지은 제사문이다. 제사문은 왕위를 항우에게 찬탈당하고 억울하게 살해된 의제(義帝)를 조상한다는 내용이지만, 연산군은 이를 세조가 조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고 죽게 한 것을 비꼬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연산군은 격노했다. 이미 죽은 지(1492) 6년이 지났건만 김종직은 부관참시당했다. 급기야 김종직의 문인으로 지목된 사림들은 참화의 구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무오년의 사화였다.

1504년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 윤씨의 복위 문제로 갑자사화가 일어났을 때 소릉 복위를 최초로 거론했던 남효온의 상소 문제가 다시 논죄되었다. 고양에 있던 남효온의 묘는 파헤쳐지고 부관참시당했다. 백골은 양화도(楊花渡) 나룻가에 버려졌으며, 아들 충서(忠恕)도 사형당하고야 말았다.

중종반정으로 사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사림들은 소릉 복권을 집요하게 요청한다. 1513년 소릉이 사후 폐위당한 지(1457) 56년 만에 남효온이 복위를 상소한 지 35년 만에 드디어 소릉은 현덕왕후로 복위한다.

편집국장 권행완

조선 최초로 시집가기

1392년 이성계와 정도전의 역성혁명으로 500년 고려 왕조가 무너지고 조선이 건국되었다.

고려는 불교 국가였고 조선은 유교 국가였다. 통치철학과 제도 이념 등 모든 제반 조건들이 바뀌었다.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가 수반되었다. 이에 따라 사람들도 고려인에서 조선인으로 바뀌어야 했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일례로 고려에서는 남녀가 혼인을 할 때 신랑이 장인 집으로 가는 "장가를 갔는데" 조선에서는 신부가 시댁으로 "시집을 갔다." 그런데 조선 초기 세종 때도 역시 "장가를 가고" 있었던 모양이다.

혼례 문화를 유교적인 예(禮)로 정착시키기 위해 태종 때부터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장가가는 풍습'을 하루아침에 '시집가는 풍습'으로 바꿀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세종은 김종서를 어전으로 불러 말했다.(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2월 22일 무자 1번째 기사)

"친영(親迎)의 예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실시하지 않았는데, 부윤(府尹) 고약해(高若海) 등이 고례(古禮)에 의거하여 이를 실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태종 때에 친영의 예를 실시하자는 의논이 있었으나, 나이 어린 처녀도 모두 결혼을 시킨 것은 친영을 행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 어려운 이유란 무엇인가"하니 김종서가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의 풍속은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가는 것이 그 유래가 오랩니다. 만일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곧 거기에 필요한 노비·의복·기명(器皿)을 여자의 집에서 모두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곤란하여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의 집이 만일 부자라면 곧 신부를 접대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지만, 가난한 사람은 부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남자의 집에서도 이를 꺼려 왔습니다"하였다.

세종이 말하기를 "이 예법이 과연 갑작스레 실시될 수 없다면 왕실에서 먼저 실시하여, 사대부들로 하여금 본받게 한다면 어떨까"했다.

그러자 김종서가 "정말 말씀과 같이 하시와 왕실에서부터 먼저 실시하시고, 아래에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죄를 주지 않으시면, 고례를 행할 뜻을 가진 사람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며, 그렇게 해서 오래되면 온 나라에서 저절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세종은 김종서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자"라고 말했다.

이런 일이 있는 다음에도 한참 동안 사람들은 "장가를 갔던" 모양이다.

그로부터 5년 뒤(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2월 29일 신미 2번째 기사) 태종의 궁인 소생 숙신 옹주가 윤창(尹敞)의 아들 윤평(尹泙)과 혼인하며 조선 최초로 "시집을 갔다."

편집국장 권행완

제32회 권문가족 전국체육대회 변경 안내

제32회 권문가족 전국체육대회를 4월 12일(일) 경남 산청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부득이 **무기한 보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락처 : 안동권씨 산청청장년회
권병국 회장 010-2830-2600
대종회 사무처 02)2695-2483~4

2020년 4월 1일

주최: 안동권씨 청장년회 주관: 안동권씨 산청청장년회
후원: 안동권씨대종회, 산청종친회